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김승호
시선

‘중소기업’이란 단어를 넣어 만든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이란 문장은 사실 기자가 익숙한(?) 자리에서 한두번 써 먹었던 건배사다. 칼럼에 무슨 술자리에서 오간 건배사까지 끄집어내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숫자는 849만9552개로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는 총 1912만4806으로 전체의 80.4%에 이른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 국민 10명 중 8명은 소상공인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80% 국민의 생계가 달려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9개 부처, 6개 처 등 총 50개(19청 6위원회 포함)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출범 10주

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위해선 일자리 창출 근원인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

현 이재명 정부 들어선 전체 기업의 95.3%, 종사자수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위해 중기부 내에 제2차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기부 장관엔 현 이소영 장관까지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전 경력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1명, CEO 출신 1명씩이다.

하지만 중기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와 중소기업인들의 염원과 달리 과거 중소기업청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뭉집만 커진 중기청’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앞서 중기부 장관을 하다 퇴임한 6명 중 일부는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기업’을 챙기기보단 자기 정치만 하다 간 인물도 있다.

장관 재직 기간은 2대 박영선 장관이 약 1년 9개월로 그나마 가장 길었지만 모두 2년을 넘기질 못했다. 인사권자가 경제 시계보다 정치 시계를 우선한 탓이다.

최근 취임한 이소영 장관도 ‘10년 중기부’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진행된 취임식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10년을 열어야 한다. 앞으로의 10년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10년’이 ‘과거의 10년’과 전혀 동떨어질 순 없다.

그래서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을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동분서주했고 기관을 가다듬어야 할 수장들은 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막내 부처로서의 한계도 컸고 부처간 이기주의나 줄다리기도 적지 않았다.

어쩌면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에 대한 성찰도 열살을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bada@metroseoul.co.kr

금융감독의 ‘주소’는 어디인가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금융위원회의 세종행이 확정된 13일, 금융감독원 인파도 술렁였다. 한때 금융위의 서울 잔류설이 돌면서 안도하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금융위가 떠난 자리에 금감원만 남게 될지, 아니면 곧장 세종행 짐을 싸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금융위의 이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주요 경제부처가 모인 세종에서 금융정책을 조율하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향에도 부합한다. 다만 금융위가 세종으로 간다는 사실이 금감원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금감원의 일은 책상 위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고 내부통제의 허점을 찾아내며, 사고가 터지면 현장

에 들어가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숫자로 드러난 위험을 읽는 일만큼 숫자에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일도 중요하다. 감독 경험의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을 오래 지켜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현장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 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본점이 서울에 있고 금융협회와 자본시장 관계 기관도 밀집해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독 대상까지 함께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업무의 이중화다. 금융위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 세종을 오가고, 금융회사 검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서울을 찾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신속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물론 KTX를 몇 시간 더 탄다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동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쌓이면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금융위가 세종으로 옮기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 공간도 분리된다.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회사 사이의 신속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두 기관이 떨어져 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긴밀한 협업을 유지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떠난다. 금감원의 이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논의만은 아닐 것이다. 금융감독이 현장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이전 이후의 업무 체계를 살펴볼 때다.

금융당국의 주소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현장까지 함께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zelkov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유망한 업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60년생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84년생 근심만 쌓이고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소

49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61년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3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85년생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은 되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로랑서

50년생 전공을 살리지 못합니다. 62년생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74년생 주위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86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입니다.



도끼

51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세요. 63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75년생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휴식하세요. 8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조

5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4년생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노력하면 대가를 얻게 됩니다. 88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하니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만무합니다.



뱀

53년생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65년생 은인이 원수가 되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77년생 우유부단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89년생 사사롭게 흐르지 아니하면 크게 쓰일 것입니다.



말

54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66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78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9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양

55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67년생 미래의 계획을 진심으로 고민해보세요. 79년생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68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80년생 의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음은 절대 금지!



닭

57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69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81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93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개

58년생 망설임보다는 자신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70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82년생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마무리에 힘쓰세요. 94년생 서두리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하세요.



돼지

59년생 기대하던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71년생 노력만큼 결실을 맺기는 힘듭니다. 8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와 의논하세요. 95년생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춧불 찬가

밤을 밝히는 대표적인 것이 호불불을 포함한 등불류와 촛불이다. 등불은 기름을 사용하여 심지를 담겨 불을 붙이는 형식이라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이 필요하며, 심지에 밀랍이나 왁스 등을 넣어 불을 붙인 양초 자체를 뜻하지만, 무엇보다 촛불은 지혜와 희생을 상징한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지혜의 현현이요,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환하게 비추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고대로부터 실내조명과 같은 실생활의 보조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제사나 제례는 물론 종교적 의식 등에 사용됐다. 카톨릭 기독교의 경우 영적 의미로서 대립절에 사용되는 네 개의 촛불은 각각 소망·평화·기쁨·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준비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는 것은 전통적인 예불 의례인데 요즘은 인공 촛불로 대체된 절이 다수이다. 산속에 있기에 화재 위험 때문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만큼은 개인을 위한 촛불 기도의 경우에는 촛농의 모양을 보면 기도성취가 수월할지도 가능성이 된다. 촛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물론 불교에서처럼 신앙적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일반인들의 삶에서도 촛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결혼식 때에도 ‘화촉을 밝힌다’ 라고 하지 않는가? ‘화촉(華燭)’은 빛깔을 들인 밀초를 의미하며, 귀한 밀초를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었기에 ‘화촉을 밝히다’가 결혼을 상징하게 되기도 하였지만, 기독교의 성경적 의미로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의 촛불을 켜서 중앙의 하나 된 촛불에 합치는 ‘단일 촛불’의식이다.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할 때도 촛불 행진이나 촛불 집회가 열리곤 한다. 촛불을 들고 비폭력 저항을 표명하는 집회를 ‘촛불 집회’라 각종 정치적 사적회 이슈에서도 단골 메뉴 집회가 된듯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3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8	9	6	2	1
1	9	9	8	1	2	6
1	6	2	2	8	1	9
9	8	1	6	2	8	9
6	9	2	1	8	1	9
2	1	8	9	9	8	2
8	2	6	1	2	1	9
9	2	1	8	8	9	2
8	1	9	6	2	9	1

9	6	2	9	2	1	8
1	1	9	9	8	2	6
2	8	8	2	6	1	9
6	8	1	1	9	2	8
9	1	8	6	2	1	9
2	2	9	1	8	8	1
1	2	6	2	1	9	8
8	9	2	8	9	2	1
8	9	1	8	1	6	1